

총무원장스님의 동국포럼 연설문

1. 인사말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이연택 총 동창회장님과 동국포럼 정재철 장관님을 비롯한 동창회 관계자들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전에 이연택 회장님 께서 저의 집무실에 방문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저의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에 대한 관심의 폭이 동창회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새삼 이연택 회장님과 동창회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동창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동국대학교의 위상과 역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국대학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립대학으로, 우리 교계의 선각들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 발전되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우여 곡절을 겪기도 하였지만 현재에 이르기 까지 100여년 전통의 명문사학으로, 교육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또한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에 조계종단을 대표한 교육기관으로 동국대학교는 우리 모든 불교도들의 자랑이기도 하고 긍지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부처님의 높은 가르치심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동량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부처님의 또 다른 도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과 기능을 높여나가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대학을 위시한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화하고 역사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종립대학인 동국대학의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동국대학교의 중요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의 육성과 높은 연구 성과를 내는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측면에서 좋은 교육환경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

니다. 이에 동국대학교를 외호하는 조직으로의 조계종단과 동창회가 그 이해 관계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조계종단과 동국대학교의 관계

종립대학을 육성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조계종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년이라는 동국대학의 역사를 뒤돌아 보면 오늘의 동국대학이 있기까지 중요한 계기마다 조계종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항상 함께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설립당시는 물론 해방직후의 시기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현재의 외형과 내용을 가추기 까지는 종단의 기본자산출연과 교계선각들의 희생의 역사와 그 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년 들어 우리 조계종단이 개혁과 변화의 진통을 겪는 과정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과도기를 경과하면서 유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서로의 관계나 역할이 조정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단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으로써 불교의 발전과 동국대학교의 발전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단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동국대학교에 거는 기대 또한 작지 않습니다. 불교대학이나 인문대학을 통하여 우리 불교학과 민족사상의 체계화, 현대화의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또 이공계 대학의 과학과 기술을 통하여 미래세계를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상생하도록 이끌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동국대학교를 축으로 하는 인재불사, 즉 각계의 전문가 집단과 사회지도층 육성이 일어나 불교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가 우리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도 동국대학교라는 유수의 교육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단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원장 본인에게 부과된 책임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국대학교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종단의 역할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조계종단과 동국대학교 상호의 관계증진과 역할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갈 것입니다. 다만, 학교당국은 물론 우리 총동창회 여러분도 학교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4. 종단운영에 대한 기본기조에 대하여

- 종단의 내실을 기하는 문제
-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는 문제
- 사업을 다각화 해나가는 문제

5. 동국대학교 동창회에 대한 기대와 바람.

- 동국대학교의 냉정한 현주소
-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방향과 방법

종단 발전을 위한 4개년 발전계획이 공개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오늘(1월12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제33대 대한불교조계종 4개년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오늘 총무원장 스님이 밝힌 종단 발전계획의 핵심 발원은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이다. 총무원장 취임이후 줄곧 제시해 온 종책 방향으로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를 근간으로 3대 종무기조를 제시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라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종단과 한국불교가 지향해야할 구체적인 기둥인 3대 종무기조는 △수행종풍 선양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 △사회적 소통과 공동선 실현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밝힌 3대 종무기조는 지난 7일 법전 중정예하의 신년 교시와도 일맥상통한다. 법전 중정예하는 "조계종 종지 선양을 통한 수행종풍의 확립과 함께 사회적 소통으로 공동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의 대전기(大轉機)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11대 핵심과제를 3대 종무기조와 관련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담당기구 및 부서.

▲수행종풍선양 = △수행법의 표준체계 정립과 대중화(기획실, 가칭 '수행위

원회')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 개선(교육원) △신도 교육과 조직화(포교원)

▲사회적 소통과 공동선 실현 = △종교간 협력을 통한 공동선 실현(사회부, 사회복지재단, 아름다운 동행)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화쟁(和諍)위원회' 구성 활동(기획실, 사회부)

▲기타 = △수행·전법을 위한 승가복지(총무부, 승가복지 TFT)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과 활용(문화부, 문화사업단)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한 국제포교 네트워크 강화(사회부) △총본산 조계사 일대 전통문화 공간 조성(총무부, 조계사, TF팀) △국립공원과 문화재구역입장료 제도 개선(기획실,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종단 재정구조의 합리화(재무부, TF팀).

11대 핵심과제 가운데 5가지가 3대 중무기조에 해당하고, 나머지 6가지는 종단의 숙원사업과 현안 과제이다. 11대 핵심과제를 이같은 정한 배경은 제33대 조계종이 중무기조를 유지하면서 한국불교와 종단의 현안을 충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오늘 총무원장 스님이 밝힌 제33대 조계종의 주요과제는 모두 25가지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담당부서이다.

△결계 포살의 정착(총무부) △주지 인사고과 제도 시행(총무부) △소통과 화합을 위한 '종단발전위원회' 운영(기획실·사서실)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확산(사회부) △사회변화에 따른 종단의 사회복지 참여 영역 다양화(사회복지재단)

△사회 각계 불자들의 네트워크화(기획실·사서실) △사회 문제의 불교적 대안 창출을 위한 '연구소' 운영(기획실) △10·27법난 명예회복및 역사교육관 건립(사회부) △해외특별교구 설립(총무부·사회부) △국제선센터 개원 운영(재무부)

△사찰중심의 지역포교 활성화(포교원) △청년·대학생 계층 포교 활성화(포

교원) △군 포교의 인적 물적 역량 강화(포교원) △전통사찰 보전과 활용(문화부) △불교무형문화유산 육성(문화부·박물관)

△사찰 음식 대중화(문화부·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국제화(문화사업단)
△불교미디어 활성화 지원(기획실) △환경보호 활동 및 사찰 수행환경 보전(사회부) △남북 불교 교류 활성화(사회부)

△불교규제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기획실) △종단 토지 처분금의 효과적 활용(재무부) △사찰등급 현실화를 통한 분담금 조정(재무부) △종단 재정의 다변화를 위한 조직 구성(재무부) △전산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화(기획실)

불교중흥은 교육과 포교에서 나온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신년회견 일문일답
관련 뉴스
[종단]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
[종단] 행자교육 5단계로 확대 개편

‘종단발전 4개년 계획’을 발표한 오늘(1월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종책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답변은 실무 부·실장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 종단발전 4개년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마련 방안은.

= (기획실장 원담스님) 조만간 TFT 팀을 구성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이다. 기존 TFT 팀 활용 계획도 있다. 재정부분은 종단 수익을 다변화하고, 토지처분금을 전용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중앙종회의 협조를 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 종단발전 4개년 계획의 추진 현황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 (총무원장 자승스님)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점검할 것이다. 또한 분기별로 점검하여 꾸준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불교미디어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 (기획실장 원담스님)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종단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불교미디어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종단도 깊은 생각을 갖고 미디어 시장에 대처하겠다. 교계 내에 여러 매체가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해서 종단도 일정부분 참여하는 모양을 갖추겠다. 상세한 부분은 이후에 밝히겠다.

- 기존에 추진해온 간화선 대중화와 이번에 핵심과제로 제시한 '수행법의 표준체계 정립과 대중화'는 어떤 차이가 있나.

= 수행위원회는 간화선 대중화와 다른 뜻이 아니다. 교육원에서 이 시대에 맞는 승려 교육이 주안점이다. 불교는 수행을 중시한다. 170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수행법을 체계화한 적이 없다. 한국불교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수행법이다. 이 부분이 간화선과 다르지 않다. 수행법을 체계화 보편화하는 것과 간화선은 별도의 의미가 있다.

- 주지 인사고과 제도 시행으로 본말사와 충돌은 없겠는가.

= (총무부장 영담스님) 교구본사와 충돌하지 않는다. 교구본사에 인사고과제도를 도입하려면 종헌종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직할교구 사암에 한해 인사고과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점수를 1000점으로 했을 때, 850점 이하이면 재임이 불가능하다. 1000점은 총무행정 200점, 포교 200점, 재정 350점 등의 방식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감점제도도 도입하여, 선거관리를 미흡하게 했거나 화재가 발생되면 감점할 것이다. 이를 총합하여 850점 이하이면 재임이 안 되게 할 것이다. 총무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할 것이다.

- 템플스테이 국제화에 있어 지금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생력을 갖추는 방안은 있는지.

= (문화사업단장 종훈스님) 템플스테이 자체가 목적을 내국인에 두고 있지 않고, 외국에 두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불교를 체험하는 것이 핵심이고, 내국인은 불교수련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난해 12월 보고하면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을 850만 명을 유치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템플스테이를 외국인 문화체험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OECD 사무국에서 보고서를 낸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한국의 관광부분에 있어 템플스테이를 우선 꼽고 있다. 따라서 해외홍보를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한다. 유럽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오는 2월이나 3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공사와 정부,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원과 협조하고 있다. 올해는 내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템플스테이 국제화에 이바지 하겠다.

- 지난해 중국 불교계 인사들이 방한하여 달라이라마 초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총무원장 스님의 뜻은 어떠한가.

= (총무원장 자승스님) 달라이라마 방한에 대해 종단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 다만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초청하는 것도 검토해볼 생각이다.

- 승가교육진흥위원회 구성과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 (교육원장 현웅스님) 종단과 교육원에 교육관련 위원회가 몇 개 있지만, 종단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려면 종도의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종단의 교육부분에 관심과 경력이 있는 분으로 구성할 것이다. 종단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총무원장 스님이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향우 운영방안은 협의를 통해 도출할 것이며, 위원회는 월 말까지 절차를 거치면 2월에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단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고 종도들의 합의를 도출할 것이다.

- 화쟁위원회 조직 형태와 구체적인 역할은.

= (사회부장 혜경스님) 지금까지 종단의 근간에 대한 문제에 역점을 두어왔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근간이 섰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확장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갈등이 있다. 지역, 문화, 계층, 노동 분야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종단에서 부처님 가르침인 중도 연기(中道緣起)의 관점에서 불교적 입장을 갖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데 한 축이 되고자 준비한 위원회이다. 종단의 사회활동 분야에서 활동하던 NGO 스님이다. 교계내 NGO 단체, 각계각층의 학자,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모일 것이다. 사회활동을 하는 중진스님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 (총무원장 자승스님) 한국사회에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33대 총무원은 종단 내부분계에서 사회로 관심을 돌릴 것이다. 사회가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중재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종단 내외가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내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 우리 종단은 소통과 화합, 불교중흥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불교중흥은 교육과 포교에서 나온다. 교육을 통해 종단의 백년대계를 만들 것이다. 교육과 포교에 모든 것을 걸고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려고 한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2010-01-12 오후 2:19:32 / 송고